익산, 10곳 박물관 활성화 방안 마련

마한부터 백제, 근대역사 볼 수 있는 박물관 산재
박물관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강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익산시가 지역에 산재된 10여곳의 박물관을 활용한 관광활성화에 나선다.

익산에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에 걸맞게 국·공립·사립 박물관이 모두 10여곳에 달한다. 마한시대부터 백제역사, 근대문화까지 아우르는 박물관이 전 지역에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시는 이들 박물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시대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관광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위치해 있는 동부권에는 백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국립 익산박물관과 왕궁리유적전시관, 마한박물관 등이 있다.

미륵사지 석탑과 사리장엄구까지 백제시대의 다양한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 익산박물관은 고도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할 복합문화공간으로 새 단장하기 위해 잠시 휴관 중이다.

기존보다 3배 가까이 넓어진 규모로 백제 불교문화와 건축기술을 감상할 수 있는 유적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왕궁리유적 발굴조사 때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건립된 왕궁리유적전시관과 백제시대 이전 마한시기의 유물들이 전시된 마한박물관에서는 각 시대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백제로의 시간여행을 마치면 익산의 대표산업인 보석을 감상할 수 있는 보석박물관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는 보석체험교실과 각종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북부권에도 익산지역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전시관이 여러 곳이다. 먼저 백제시대 귀족들의 묘로 추정되는 입점리 고분은 웅포면 함라산 능선에 자리 잡고 있다.

발견 당시 확인된 21기의 고분에서 출토된 다양한 종류의 유물을 통해 익산이 당시 백제의 대외교류 창구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추정되고 있다. 고분과 함께 출토된 유물들은 입점리 고분전시관에 보존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익산시가 지역에 산재된 10여곳의 박물관을 활용한 관광활성화에 나선다.

삼기에는 연안이씨 종중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충간공보물제651호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박물관은 최근 연안이씨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시되고 있다.

지역 외곽에서 마한과 백제의 역사를 살펴봤다면 도심으로 이동해 근대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근대 건축물이 산재해 있는 중앙동에 올해 초 근대역사관이 건립됐으며 일제 강점기 시절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상설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전쟁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여산 부사관학교 내 국립전사박물관과 원광대학교에 위치한 원불교역사박물관, 원광대박물관 등이 각 분야별로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있다.

익산시는 세계유산의 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두시순·두정란장군 묘역' 향토문화유산 제21호 지정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옥구읍 오곡리에 소재한 '두사순현감 및 두정란장군 묘역'을 향토문화유산 제21호로 지정했다.

향토문화유산 21호로 지정된 '두사순 묘'는 조선시대 무신인 두사순(杜思順, 1525년~1587년)의 묘로 충청도 비인현감 및 강령현감 재직시 청백리이자 선정을 베푼 목민관으로서 명성이 높았던 인물이다.

두사순 묘는 이장 과정을 거쳤으나 봉분이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비석은 340년전에 세워졌으며 예술적가치가 있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두정란장군 묘'는 조선 시대 무신인 두정란(杜廷蘭, 1550~1592년)의 묘로 임진왜란 당시 웅치전투에 공훈을 세워 전주성방어의 위업(偉業)에 기여한 옥구현(沃溝縣)출신의 인물이다.

두정란의 분묘는 건립된지 422년이 되었고, 봉분이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봉분앞 묘비와 상석,문인석등은 1831년에 건립되어 묘갈명에 웅치(곰티재)에 순절한 기록이 남아있어 웅치전투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고증의 가치가 있다.

두 장군이 참전한 웅치전투는 전라도 지역에서 여러 수령들이 거느린 관군과 지역의 의병이 참전한 전투로 임진왜란 초기 전황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전라도로 침공해 들어오는 왜적을 막아 호남을 지킨 전투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선을 구한 전투라고 평가받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장행정

정헌율 익산시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대책 이행여부와 현장의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7일 부송동에 위치한 꿈에그린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업시간 및 조업량 단축에 대한 내용 등을 직접 설명했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1일 박철웅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친화도시 추진단을 구성하고 환경친화도시를 선포하는 등 본격적인 환경문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주거지역에 인접해있는 아파트 건설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개소를 선정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저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경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원인을 차단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 최초 한미군 계약사업 설명회 개최

지역 기업 진출 확대 위해

군산시가 주한미군 411 계약사령부(군산지청장 모니카 클레이튼)와 공동 주관으로 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업체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지역 주한미군 계약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한미군 기지가 생긴 이래 군산에서는 최초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내고장 생산품과 지역 업체 애용에서 출발하는 '군산사랑 시민운동'과 연계해 추진됐으며 주한미군 조달시장에 지역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주한미군 측에서 주한미군 사업자 등록방식, 계약 진행과정, 입찰서 작성방식, 성공적인 계약이행을 위한 조언, 계약유형, 대금청구 및 결제절차 등 전반적인 계약사업에 대해 설명했으며, 통역가능자를 배치해 업체 관계자의 이해를 도왔다.

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군산지역 주한미군 계약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성우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주한미군 조달시장은 건설·운송·통신·사무용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며 그 품목이 다양하다"며, "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더 많은 수주기회가 확대되길 바라며, 규정과 절차를 잘 이해해 향후 미국 본토 조달시장 진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 주변 공원 새 단장 주민 개방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본부(본부장 황해석)는 발전소 일원에 조성한 공원을 주민들을 위해 새롭게 꾸몄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군산발전본부는 발전소 정문 앞 공원지역에서 황해석 군산발전본부장과 정길수 군산시의회 의원, 박미숙 경암동장, 이해병 주민자치위원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 새롭게 탈바꿈한 공원은 서부발전 소유로 약 1만1,500㎡부지에 조성됐으며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운동과 산책을 즐기고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발전기 로터를 전시해 교육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운동기구·벤치·주차장 등 각종 편의서설도 갖추고 있어 지역주민과 경암동 철길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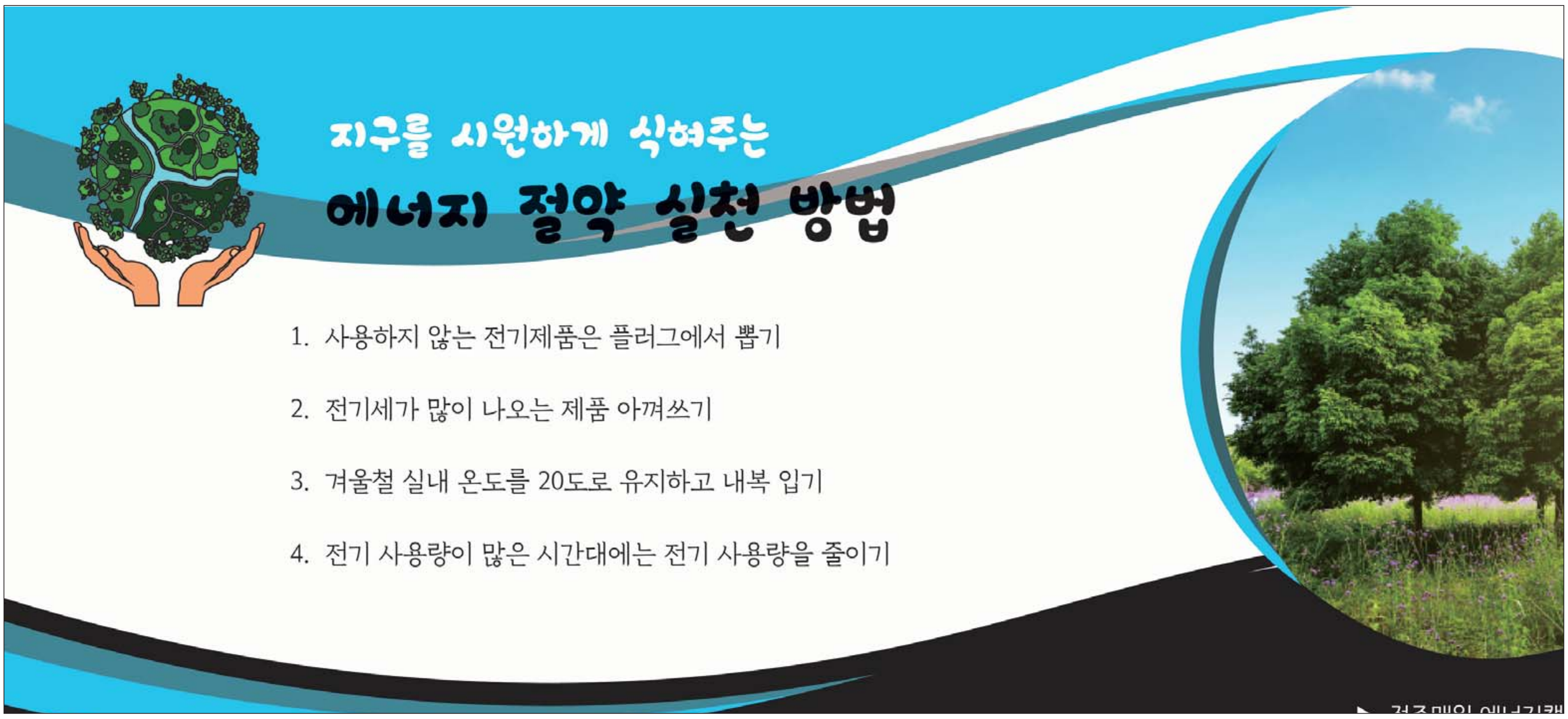
익산 시내 주요도로 노후 인도 정비

파손된 보도블록 등

익산시는 보행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시내 주요도로 노후 인도를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지난해까지 정비되지 않은 노선과 설치한 지 오래돼 보도블록이 심하게 파손된 구간, 나무뿌리 돌출로 노면이 울퉁불퉁한 구간, 경계석 불량으로 인한 민원발생 구간 등으로 보도 통행이 많은 시내 주요노선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가 완료되면 관광객은 물론 전기차와 유모차 등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석연 도로과장은 "보도정비 사업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의식"이라며 "보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간판 설치나 인테리어 공사용 사다리차 등의 인도 진입과 인도상 무단주차를 자제해 더 나은 보행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인천 기자